



사람 타클라마칸 단독종주 탐험가 남영호

## 혜초 스님 도전정신 있다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이유는 그분의 프런티어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실�크로드 한복판의 ‘죽음의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구간을 한국인 탐험가 남영호(32)씨가 세계 최초로 도보단독 종주에 성공했다.

남씨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의 저자 혜초(慧超·704~787) 스님의 여행경로를 따라 지난 10월 3일부터 19일 동안 450km 죽음의 구간을 건넜다.



‘죽음의 사막’ 타클라마칸 종주에 성공한 남영호씨.

10월 3~19일 450km 구간

‘왕오천축국전’ 경로 따라

남씨는 2일 인터뷰에서 “불교신도가 아니지만 1300년 전 그분의 미지에 대한 도전과 탐구 정신은 종교를 넘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남씨는 “우리는 ‘마르코폴로’ 같은 외국 탐험가를 위대하다고 말하며 수백년 앞서 동남아·인도를 거쳐 아랍까지 진출한 혜초 스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 <왕오천축국전>이 세계 3대 여행기 중 하나라는 사실, 그것이 프랑스에 있고 문화재 반환목록에서조차 빠져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왕오천축국전>을 분석해 혜초 스님의 루트를 추정해 그 대로 따랐다. 혜초 스님의 여정은 2006년 유라시아 대륙 1만8000km를 자전거로 횡단한 베테랑 여행자인 남씨에게도 순탄치 않았다. 특히 남측 출발지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호탄에 도착한 후 위성위치추적장치 GPS 작동시험을 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현지 당국에 의해 GPS를 압수당한 것은 큰 장애로 다가왔다. 목적 좌표와 각종 정보를 잃고 남씨는 혜초 스님의 여정 그대로 직관과 나침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씨는 첫날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내륙으로 들어가 길을 잃고 헤매는 등 숱한 우여곡절에도 하루 평균 24km의 강행군을 계속했다.

남씨는 “타클라마칸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소름 돋을 정도의 광활함, 막막함이 느껴지는 사구(砂丘)의 파도를 보며 오히려 견뎌보겠다는 마음이 더욱 생겼다”며 “처음 사막을 접하고 종주를 위해 실�크로드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고 혜초 스님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씨는 탐험의 여독이 가시기도 전에 혜초 스님과 <왕오천축국전>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남씨는 2010년 경주를 출발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이란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오는 혜초 스님의 여정을 4개월간 탐험할 계획이다.

한편, 남영호씨의 타클라마칸 사막 종주기는 11월 13일, 20일 밤 8시 50분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희망을 꿈꾸는 도반 될 것”

조계종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 이 대통령 등 각계 축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불교증흥’을 표방하는 조계종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은 11월 5일 오전 11시 총본산 조계사에서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 등을 통해 불교저변을 확대하고 대사회적 역량을 강화, 보다 폭넓은 불교계 활동을 펼 것을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제33대 총무원은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될 것”이라며 “항상 깨어있는 수행자의 본분과 초심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또 “관주위보(貫珠爲寶)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대중을 섭수하고 종문(宗門)의 정안(正眼)으로 종통을 바로 세워 불조 혜명을 빛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준비위원장 자적 스님의 자승 스님 수행이력 소개와 각계 화합 증진이 진행됐다. 특히 화합 증진은 ‘젊고 열린 불교, 화합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불교’란 의미를 지니 더욱 뜻깊었다. 전국 신도를 대표해 김의정 중앙신도회장과 조계사 이연숙 신도회장의 화합증정에 이어 해외 불교국가를 대표한 미얀마 보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5일 조계사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한국불교 증흥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박재원 기자

인 대사와 청년불자를 대표한 대불련 이경환 회장의 화합 증정은 큰 박수를 받았다. 자승 스님의 취임에 사회 각계에서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자승 스님의 취임에서 보여준 ‘대승적 추대’는 열린 종단, 그리고 화합의 종단으로 이끄는 적임자라는 종단의 뜻”이라며 “원융화합의 정신을 널리 퍼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화합과 국민적 화합에도 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취임법회는 전국비구니회 성관 스님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불자들의 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법회에는 밀운 천운 동춘 원명 혜정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소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각 종단 대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정관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불교 증흥을 발원했다. **관련기사 9면**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조계종 포교대상에 도문 스님

14일 시상식... 공로상에 지현 스님 등

조계종 포교대상에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11월 2일 포교대상심사위원회를 개최, 제21회 포교대상에 도문 스님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포교대상(종정상)을 수상한 도문 스님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불교초전법륜성지 성역화 봉사, 군법사 양성 및 군포교 활동, 20여종의 경전 번역 및 불서 법보시 운동,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설립 등 49년간 활발한 계층포교를 펼치며 수제한 불자만도 105만 명에 이른다.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불교회



도문 스님

스피스 회장 지현 스님(어린이포교, 송광사 율주), 부산 설동근 교육감(청소년포교), 한갑진 한진흥회 회장(영산포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예술포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14일 포교결집대회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 백양사 야단법석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21		고우 스님	시몽 스님
11/22	각목 스님	용타 스님	용타 스님
11/23	도법 스님	월암 스님	월암 스님
11/24	시몽 스님	향봉 스님	향봉 스님
11/25	도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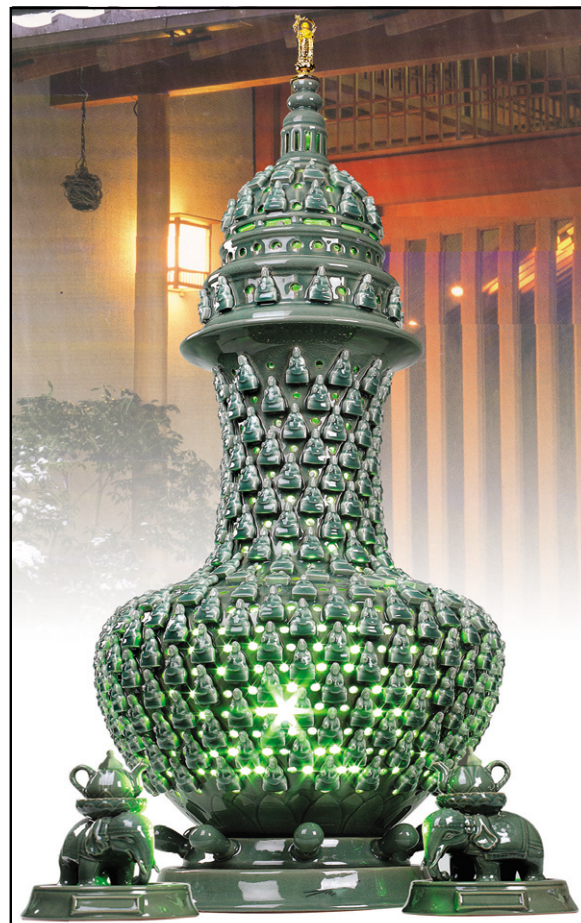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결 : 2009년 11월 21일 낮 12시  
입 재 : 2009년 11월 21일 오후 2시  
회 향 : 11월 25일 오전 11시  
대 상 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동 참 비 : 출가자-10만원, 재가자 20만원  
접 수 처 : 능협 645117-51-017109(예금주:백양사)  
접 수 처 : 백양사 중무소 (061)392-7502

주최 : 고불총림 백양사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동결기이므로 개인취급 반드시 지참하세요

##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일 두리야 전문  
차다원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칠불명반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받침폭 : 30cm  
□ 무 게 : 25kg

##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빛,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재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인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